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유사성 연구
(기능과 역할, 조형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imilarities between folk painting and illustration
(Concentrating on functions and roles, molding specificity)

유동관(Yoo Dong-Kwan)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 전공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要約)

민화는 일반대중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정서와 감정, 사상 등을 다양한 기능과 미의식적 조형특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낸 실용회화이며, 현대사회의 정보전달을 위한 매체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은 독창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각환경을 형성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정보화산업사회의 중요한 조형수단이 되고 있다.

2. 민화의 기능과 역할

3. 민화의 조형특성

4.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과 역할

5. 일러스트레이션의 조형특성

6.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유사특성

7.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Folk paintings influence the lifestyle of the general public, and is visible practical communication presenting emotion, feelings and phenomenon through various functions and aesthetic molding specificity. Illustration as a medium for conveying information in modern society is time communication forming time circumstance based on a creative image, becoming an importance in the means of molding an active information society.

Folk paintings and illustration express the subject of various kinds of stories of surroundings of daily lives ironically, humorously and symbolically, convey it in an accurate and detailed way in the various use of color and shape representation, and have a similar specificity as the general public's art influencing the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the general public's emotion and feelings of that time.

The current research is to suggest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Korean image representation in illustration by analyzing folk painting and illustration characters based on social, cultural function and role and molding specificity.

(Key word)

Similarities, Folk painting, Illustration

1. 서론

1-1. 연구목적

민화는 한국 사회와 대중들의 행복과 평화, 수복강녕(壽福康寧)에 대한 소망과 욕구를 나타내면서 한편으로 모든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을 그려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기도 했다. 즉 민화를 통해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을 경계하기 위한 교육을 하였으며, 화조, 산수 그림 등은 좋은 음악을 듣는 듯 사람의 마음을 꽂처럼 아름답게 하고, 부부간의 사랑이 다정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사슴처럼 닮아 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민화는 대중에게 이름다움을 통한 기쁨과 아울러 인간 중심의 우주, 인생관, 그리고 정치, 사회를 지킨 윤리 의식의 고조와 예문에 대한 일반대중의 사랑과 존경심을 심어 주고 복돌아 주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의 민화는 사회의 순화(醇化), 인심의 정화(淨化)를 위한 기능을 지닌, 한국적 정서와 감성, 정신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을 이어온 실용회화라고 할 수 있다.

대중예술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말부터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곽영권, 사회적 특성과 기능으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개념연구」 「권혁수, 근대이후, 일러스트레이션의 존재방식에 대한 연구, 1992」 「한은희, 대중예술로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1996」 등에서 사회·문화적 개념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연구한 사례가 있으나, 대중문화의 확장과 매스미디어의 급성장, 정보화 산업사회에서 대중성과 더불어 수용자의 직접감각과 감성에 호소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일러스트레이션의 사회·문화적 개념에서 비롯되는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며,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활용한 일러스트레이션분야는 독창적인 이미지전달을 가능케 하는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 서구문화의 흡수에 따른 전통문화의 와해와 단절 속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표현은 우리나라의 대중적 미의식과 심성을 바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제작된 일러스트레이션은 국제화시대에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¹⁾

본 연구는 대중적 미의식과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일반대중의 문화현상을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민화와, 대중과의 밀착된 시각환경으로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및 조형성을 중심으로 유사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한국적 이미지의 표현가능성 및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적 정서와 감정을 담아내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전갑배의 작품 「당금애기」와 「바리데기」는 신화의 환상적, 상징적 세계를 풍부한 농담과 다양한 선, 과감한 생략과 강렬한 색상대비로 한국적 조형성과 토속성을 짙게 깔고 있으며, 민화의 기법을 살려 우리 정서를 담아내는 정승각의 「까막 나라에서 온 삽사리」는 청룡, 주작, 현무, 백호 등의 사방신과 토속건 삽사리를 소재로 우리 나라 전통 문양과 오방색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정서와 이미지를 어린이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억배의 어린이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형태는 민화와 같은 전통그림에서 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세계문화 속에 우리의 토속적 이미지와 정서가 새롭게 인식되어 우리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1-2. 연구방법

신속한 정보전달매체의 확산과 시각언어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일러스트레이션의 활발한 창작활동 및 매체활용범위의 확장으로 이어져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형특성을 중심으로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유사한 특성을 연구·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와 정서가 담긴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조선후기 일반대중의 정서와 삶의 모습이 담긴 민화와 대중예술로서 전문화, 세분화, 정보화 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과 역할, 조형특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특성을 연구·분석한다.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유사특성에 활용된 그림 중 민화는 Korean Art Book(윤열수, 예경, 2000), 민화백선(편집부, 백선문화사, 1999), 조선시대의 민화(이영수, 예원, 1998), 조선시대의 풍속화(한국 박물관회, 2002), 한국의 미(김원용 외, 중앙일보, 2001), 민화이야기(윤열수, 디자인하우스, 1995) 등 화집에서 발췌하였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은 1990년 이후 인쇄·출판, 전시회 등을 통하여 발표된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우리 정서에 알맞은 일러스트레이션표현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민화의 기능과 역할

한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민화는 소박한 그림, 순직한 그림, 농민화(農民畫), 아마추어그림 등으로 불려지거나 민속화(民俗畫)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일반대중을 위한 그림,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마추어, 농민들, 또는 떠돌이 화공들이 일반대중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채워 주고 그들의 취미에 맞도록 그린 원초적이며 순박한 풍경, 인물, 초상, 풍속, 장식, 그리스도교의 성화(聖畫)를 민화로 부르고 있다.²⁾

일본의 애도시대 대중화되었던 우키요네³⁾는 원근법을 무시한 화면구도, 간결하면서 강렬한 색상, 선과 색채에 의한 장식적 표현, 자유로운 발상과 평면적 형태묘사 등의 독특한 조형적 특성으로 19세기말 유럽의 인상파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일본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민화에 대한 관심은 서양과 일본사람들에 의하여 이미 19세기 말⁴⁾부터 고조되었으며, 현대적인 의미에서 민화에 관한

2) 김철순: *한국민화논고*, 예경예술이론총서, pp. 14-20, 1991.

3) 애도시대 초기부터 막부시대 말까지 교토를 중심으로 일반대중들을 위해 발생한 다색판화로서 가부키배우, 도시여성, 일반대중들의 풍속 및 생활 등을 소재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책 등의 읽을거리가 유행하면서 더욱 대중화되었다.

월간미술, 10월호, 1997.

오끼미야 노부하루 저, 김학성, 배정순 공역: 현대 디자인사, 조형사, pp. 33-35, 1990.

4) 조자용의 연구에 의하면 공식 명칭을 「The Bernadou, Allen and Jouy Korean Collection in the U. S. National Museum」으로 불린 스미소니언 콜렉션(Smithsonian Collection)이 1884년과 1885년 두 차례에 걸쳐 민화를 수집하였으며, 일본인 야나기 소에쓰(柳宗悅, 1889~1961)는 1930년대에 호랑이, 책거리, 문자도, 호렵도, 화조, 산수, 무속화 등 다양한 민화들을 수집·전시하였다.

김철순, 조자용 공편: 조선시대 민화, 예경산업사, pp. 243-251, 1989.

연구, 수집은 전시회 및 출판을 통해 민화가 소개되기 시작한 1968년 이 후부터이다.

이러한 경로를 밟아 오늘에 이른 한국의 민화는 민중, 평민, 서민으로서의 민(民), 민속, 민예(民藝)로서의 민(民),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민(民)의 그림이라고 해석되며, 이처럼 민중, 민속, 민족의 그림을 가리킬 때 민화 속에는 서양식인 민중의 그림뿐만 아니라 왕실과 사대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되었던 그림도 포함된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상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이를 속화(俗畫)라고 하고, 여염집의 병풍이나 죽자·벽에 붙여 사용한다”라고 하였으며, 야나기 소에쓰(柳宗稅)는 민화를 “대부분 그림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한 무명화가나 떠돌이 화가들이 그런 실용성이 수반되는 그림으로 똑같은 것을 몇 장씩 반복해서 제작하고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이나 관습 등을 그렸다”고 하며, 김칠순(金哲淳)은 “비전문적인 화공들이 일반서민층의 그림에 대한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멋대로 그런 어수룩하고 소박하며 꾸밈없는 그림으로 시대와 환경에 변함에 따라 독특한 예술성과 상징성을 지녔다.”라고 하였다.⁶⁾

이와 같이 민화는 정통화법에서 벗어난 독특한 예술성과 상징성을 지닌 그림으로 일상생활공간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민속적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며, 우리 회화사의 주류에서 벗어난 비전문적인 화공이나 장인들이 일반대중의 취향과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제작된 그림으로 폭넓은 의미에서 민화는 장식과 종교, 민속에 관계된 그림들을 포함하며, 신분이나 계층의 구분 없이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해 제작된 실용회화라고 할 수 있다.

민화가 지닌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나 각각의 속성은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 미술의 대중성

일반대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회화로 제작된 민화는 작가와 대중의 공통되는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순수회화가 작가 개인의 예술성이나 개성 또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것에 비해 민화는 일반대중의 집단 미의식이나 미적 체험, 세계관이 자유롭고 독특한 표현방법과 장식성을 통해 일반대중들의 의식과 정서를 담아내면서,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표현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민화가 완성도 높은 예술작품으로 그리기보다는 생활의 필요에 따라 그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공통의 감수성을 공유하기 위한 장식적 수단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화는 그 주제와 표현의 원류에 있어 문인화나 도화서화공들의 그림을 철저히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담아내는 내용이나 표현기법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용회화로서 민화가 갖는 복제성으로 주어진 원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정해진 규범과 형식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

5) 속화(俗畫)는 저속, 비속하다는 말이 아니라 俗言, 俗風, 民俗처럼 한국의 고유한 그림을 뜻한다.

김원용 외: 한국의 미, 중앙일보, p. 189, 2001.

6) 윤열수: 민화 이야기, 디자인하우스, pp. 13-17, 1995.

성으로 정통회화의 틀을 탈피한 변형의 미의식을 추구하였다.

2) 종교적 기능

한국인의 삶 속에서 무속은 민중의 종교로서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고 정신적 내면성을 지배해왔으며, 우리 민족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무속 안에서 제작되는 무신화(巫神畫)는 신앙의 대상으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호소력 있는 강렬한 색채와 단순하고 명쾌한 구도를 이루고 있다.⁷⁾

궁중은 물론이고 사대부들의 저택, 일반서민의 집에서 축귀(逐鬼)나 구복(求福)의 상징으로, 또는 부귀나 장수, 출세, 남녀의 사랑 등 원시토착종교와 풍습의 결합에 의해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호랑이그림과 어해도는 한국적인 심성과 소망이 담겨 정월 초하룻날 대문 또는 집안에 붙이거나 병풍이나 죽자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3) 시대적 기록

민화에서 나타나는 기록화는 풍속, 예식, 건축양식, 관제, 복식 등 표현된 형상의 특징과 내용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역사적인 의미와 민속적인 자료로도 가치가 높고 그림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시나 글로 설명해 놓은 특징이 있다.

기록화적인 성격을 띤 풍속화, 기록화는 일반대중의 일상생활 보다는 궁중이나 관청, 사대부 층에서 행해지던 행사나 사건 내용을 비교적 정확한 작도법에 의해 입체감이 없는 평면구성 방법으로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 궁중의 행사나 사대부의 생활상을 그린 기록화의 영향은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더불어 일부 중인계층의 생활상이나 풍류의 장면을 사실적인 배경과 함께 인물의 표정 및 자세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한 풍속화에서도 나타난다.⁸⁾

4) 상징적 기능

민화에는 장식에 필요한 것이든 주술에 필요한 것이든 수많은 상징적인 도상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 표현방법이나 소재해석을 그 당시의 시대적·문화적 상황에 알맞게 활용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화의 상징성은 사회전체에 공유되기도 했지만 그 지방의 문화적인 환경이나 개인의 소박한 바램에 의해 자유롭게 변형되고 첨삭됨으로써 새롭고 흥미 있는 그림으로 발전되었다.

즉 까치호랑이그림, 화조도, 문자도 등 상징성을 지닌 민화는 사용용도에 따라 해학, 풍자적으로, 또는 의인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주술적인 의미와 교훈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

5) 시각전달 기능

인물화나 설화화를 통해 나타나는 이야기 전달성은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겨 얘기되었던 옛 소설이나 전설, 신화 등을 함축시켜 중요한 부분만을 병풍에 그려 넣음으로써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7)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다힐미디어, pp. 276-283, 2001.

8)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풍속화, 한국박물관회, pp. 266-273, 2002.

설명 · 도해성을 지닌 지도그림은 풍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건물이나 산의 사실적인 아름다움과 추상적 구성미가 대조를 이루면서 추상과 구상이 어울려 조화를 이룬 독특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3. 민화의 조형적 특성

전문적 화가보다는 주로 그림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전문적인 화가가 그린 민화는 전통회화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자유와 독특함, 기발한 표현기법,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사용, 강한 색채표현 등으로 일반대중의 세계관과 정서, 감정을 반영하며, 전통회화의 기법과 화법에 얹매이지 않고 나름대로의 구성원리나 표현방법에서 일관성을 담고 있다.⁹⁾

1) 다시점 사용

민화는 전통회화에서보다 좌우, 상하로 거침없이 시점을 이동해 가면서 형태를 포착해 내는 자유분방한 시점의 이동현상을 한 화면에서 보이고 있다. 즉 민화의 다시점은 주체와 객체, 자연과 나를 하나로 느끼고 일체화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그림 속에 여러 개의 시점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자유분방한 시점의 이동, 즉 복합성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2) 원근법의 무시

원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시켜 나아갔던 서양화에 비해 민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형태들은 입체감이나 형태 상호간의 공간감이 무시된 채 평면화되어 그려져 있다.

사물의 결과 속이, 좌측과 우측이 동시에 표현되는 역 원근법은 하나의 물체를 완전체(完全體)로 보는 동시에 물체의 속성을 잘 드러나게 표현하기 위해 원근법이 무시된 상태에서 나온 방법으로 민화에는 사물의 조형적인 어우러짐보다는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사물에 대한 관념그대로가 표현되고 묘사되거나 때문에 사실과 동떨어진 자유분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과거, 현재, 미래의 동시(同視)적 표현

한 화면에 일정한 시간 속의 상황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포용되면서 형성되어 있는 민화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한 화면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펼쳐져 나타나는 흰상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낮과 밤을 뜻하는 해와 달이 한 화면에 그려지는가 하면, 한 사람의 유년기와 청년기와 노년기가 동시에 펼쳐지기도 한다.

4) 강한 색채표현

민화에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어둡고 칙칙한 색이 거의 없고 모든 형태가 밝고 경쾌하며, 채도가 높은 강하고 원색적인 색

상을 사용하고 있다.

민화에 원색이 사용되었던 방법을 보면 중심적인 색채를 기준으로 하여 화면 전체의 색조가 증감의 원리에 따라 조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등장하는 각 표현대상의 개별적 색상에 따라 강렬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였다.

5) 대칭형, 나열형 구도

민화의 대칭형과 나열형 구도는 꽃 그림 종류나 정물화 계통의 그림에서 많이 취하고 있는 균형감을 중요시하는 구도로서 좌우 평형감각에서 오는 조화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전달한다. 따라서 균형감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인간의 반응은 시각적 본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민화는 좌우대칭의 안정된 구도 속에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나열형에는 화면전체에 각각의 형태들을 대체로 겹쳐짐이 없이 배치한 형과 화면의 중앙 부분에 나란히 배치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형태를 겹쳐지게 그리는 것보다 하나하나 독립시켜 그리는 것이 일반대중이 지닌 통속적인 관념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복합성과 반복성

민화는 그림의 제작의도나 주제가 일치하고 관련된 도상들을 모두 하나의 화면에 묘사하는 복합성과 반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묘사하는 시점이나 표현방법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여러 사람들을 한 화면에 등장시킨 그림의 경우, 화면속 주인공을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그려놓거나, 산수그림에서는 중요한 명승지인 폭포나 절 또는 불상 등이 산 속의 다른 형태들과의 비례관계를 무시한 채 크게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만족이나 성취의 의지를 보이는 주술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4.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과 역할

대중예술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이 제작된 이후, 과거 신문, 잡지, 서적 등 인쇄·출판분야에서 기사나 문장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돋도록 묘사한 삽화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던 시대가 시각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디지털시대로 변해가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 일반대중의 다양한 정서와 감정을 반영하는 대중예술로서 예술과 대중을 밀착시키는 시각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인쇄물을 접할 때 글이나 문장을 읽기 전에 먼저 그림을 보게되고 이것을 통해 일련의 관념이 형성된 다음, 내용을 읽음으로써 감정이입이 된다.¹⁰⁾ 즉 문자와 그림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제작과정은 아이디어를 먼저 창조해내고 거기에 맞춰 문장과 그림이 제작되지만 그것이 구매자나 독자에게 소구되는 과정은 그림이 먼저 인지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장을 읽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지각의 기능에서 그림이 문자보다 우선 이라는 것을 의미하

9)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pp. 37-43, 1995.

임두빈: *민화란 무엇인가*, 서문당, pp. 43-70, 1997.

김원용 외: *한국의 미*, 중앙일보, pp. 196-198, 2001.

10) 山田理英, 김충기 옮김: *일러스트레이션과 이미지전략*, pp. 15-19, 1991.

는 것으로 시각전달매체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의 속성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닌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 시각전달 기능

현실적인 사건이나 사고, 사실에 대한 원인과 결과,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정보를 일러스트레이터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여 전달하거나 기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표현함으로써 보도뉴스의 성격을 떠나, 비평적 특성을 지닌다.¹¹⁾

문자나 사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나 상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표현한 전문지식전달성은 대상이나 형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생활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전달성은 글이나 문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이나 색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다.¹²⁾

2) 교육·비판 기능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반대중들이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가공적·사실적 경험들을 간접체험 함으로써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성, 사고의 발달을 가져오는 시각환경이 된다. 특히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린이들이 갖는 다양한 욕구와 갈등, 기쁨, 질투와 시기, 분노, 환상 등이 내포되어 있는 동시에 어린이에게 갖추어야 할 도의 및 사회규범을 제시해주고 예술적 심미안을 길러준다.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및 비정기 간행물, TV, 영화 등과 같은 모든 대중전달매체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는 저널리스틱 일러스트레이션(journalistic illustration)은 사회 제반현상에 관한 뉴스 및 정보, 의견을 대중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뉴스전달적 성격이 강한 메시지전달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객관적 문제의식이나 주장, 감정 등을 담아 표현한다.

3) 미술의 대중성

20c 현대미술의 다양한 예술양식에서 영향을 받고 응용·발전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스타일은 사실적이고 설명적이든,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인든, 풍자와 해학적인 것인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선과 색, 형태와 계절 등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독창성 있는 시각메시지로 일반대중에게 전달된다.

스티븐 헬러(Steven Heller)는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과 활용매체가 점점 복잡·다양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일러스트레이터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중의 흥미와 감동,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기사의 주제나 이야기내용에 알맞은 시각전달방법에 있어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사고와 자유로

11) 이언 심프슨 편, 한국미술연구소 옮김, 문철 감수: 새로운 일러스트레이션 입문, 시공사, pp. 86-91, 1997.

12) 묘시다 싱이치 저, 이민정 옮김, 윤재준 감수, 일러스트리에션의 전통과 문화, 범우사, pp. 77-80, 2000.

운 발상에 기초한 접근이야말로 일러스트레이터의 개성과 창의성이 드보이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¹³⁾

따라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잡지들이 등장함에 따라 심미성과 개성이 요구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폭넓은 사고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며, 표현 가능한 모든 기법들을 활용하고 간단하고 함축성 있는 의미를 표현하여 보다 인상적인 예술작품으로서 기능을 지녀야 한다.¹⁴⁾

4) 시대적 기록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반대중에게 인쇄되어 보여지고 저장되며 소비되는 것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유행감각과 양식마저도 복제되어 보존된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록성은 종교적인 풍습, 표현대상의 머리 모양, 의상, 잘 꾸며진 내부공간, 주택 및 건물의 모습 등 그 시대와 환경의 모든 면들이 중요한 의미이며 표현주제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찌어내기 못하는 사진에 비해 일러스트레이터는 표현대상의 근심과 걱정, 기쁨, 슬픔, 생각 등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함께 표현하고 있다.¹⁵⁾

5. 일러스트레이션의 조형특성

시각커뮤니케이션환경은 기존의 인쇄방식에서부터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으로 확장된 복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방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적 발전상황 속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되고 있는 사물의 형태, 구도, 색채 등은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자극하여 정서적 변화와 감동을 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변하지 않는 조형요소가 된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창의성과 이미지 전달기능의 극대화라는 의도로 표현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1) 단순·과장성

형태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부각시키는 단순·과장성은 표현대상의 사실적이고 구조적인 형태표현 보다 완벽하고 완성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대상의 특정 부분들을 단순화시키거나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적 특성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야기 전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13) Steven Heller & Marshall Arisman: *The Education of an Illustration*, Allworth Press, p. 70, 2000.

14) Walt Reed: *The Illustrator in America*, The Society of Illustrators, p. 425, 2001.

15) 앤드류 장: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디자인하우스, pp. 80-81, 1993.

16) 무시우스 원 저, 조영철 감수, 최길렬 역: 디자인과 형태론, 국제, pp. 146-148, 1997.

김재은 지음: 유아를 위한 예술교육, 샘터, pp. 118-133, 1998.

마쓰이 다다시 지음, 이상금 엮음: 어린이와 그림책, 샘터, pp. 73-77, 2000.

단순화된 형태표현은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단순하고 기하학적 형태와 불규칙적인 형태, 그리고 혼합적 형태로 나누어지며, 표현방법에 따라 유머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유발시키고 비현실적 분위기를 전달한다. 형태나 상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확장해 표현하는 과장성은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연장이나 단축, 면적의 수축이나 확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체구조의 변형이나, 눈, 코, 입 등 얼굴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표현대상이 지니고 있는 감정과 성격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한다. 그러나 단순·과장성은 표현대상의 외형을 단순화 시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한 의도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2) 기형성

단순화되거나 과장된 표현도 기형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서 기형화는 대상이 비합리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형적 표현은 주로 특정 부분의 생략,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특정형태의 위치나 방향의 전환, 부분과 부분의 모순된 결합, 또는 형태의 속성을 변화시켜 표현할 수 있다.

기형적 표현은 이질적인 형태의 결합, 위치의 전환, 물질의 속성변화 등을 통해 일반적인 소재에서 특수한 상황을 도출해내며 그로 인한 우연성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기형화는 기괴한 형태를 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표현이 될 수 있다.

3) 의인화

일반대중에게 친근함을 전달하고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표현되는 의인화는 자연이나 동물 및 무생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스럽게 사람과 동일한 행위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표현형태의 성격부여에 따라 다양한 정서적 공감, 흥미와 즐거움을 전달한다.

의인화는 표현대상의 외적인 변형뿐만 아니라 성격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일반대중의 정서적 공감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주로 일상주변의 친근한 소재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의인화는 어린이에게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

4) 색채성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되고 있는 색채에는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놀라움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있으며, 내면세계를 아름답게 순화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색채는 감정과 느낌에 호소하기 때문에 일반대중의 감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있어 형태, 색채, 질감 중에서 효과적인 표현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분위기를 어린이의 시각을 통해 보이도록 그려내는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색채는 주제와 배경을 구분 짓고, 형태의 감정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며, 그림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고려한 이야기의 진전, 그리고 절정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감정을 전달한다.

5) 환상성

형태간의 비현실적 접합과 구성, 꿈의 세계와 상상력을 바탕

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예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일반대중에게 신비감을 주고, 호기심과 친밀감, 상상력과 공상력을 자극시키는 비현실적 표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개성을 확장시키는 요소가 된다.

특히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되고 있는 환상성은 어린이에게 신비감을 전달하고, 자연물과 같은 대상을 어린이들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변형, 의인화하여 그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시켜 즐거운 환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수단이 되며, 예기치 않은 개체들의 결합, 주관적 원근법, 움직임의 반복, 크기의 변화, 색조의 변화, 모순된 상황 설정 및 역설적 표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유사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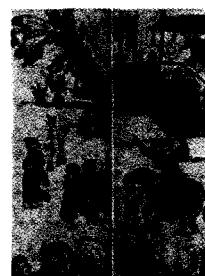
사회·문화적 개념에서 비롯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어온 현대사회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중과 끊임없이 호흡할 수 있는 예술의 개념으로 정립되어 하나의 사회예술영역을 이루었으며, 독창적인 이미지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전달매체로서 국제화, 정보화사회의 중요한 조형수단이 되고 있다.

민화 또한, 자연을 주제로 한 정통회화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 인간의 모습, 또는 일상주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켜 그려내는 독창적인 예술적 조형특성을 지닌 실용회화로서 일러스트레이션과 유사한 특성을 지고 있다.

비록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시대적 배경, 생활방식, 환경은 서로 달랐지만 대중예술로서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유사한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야기 전달성

이야기전달성은 글이나 문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이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며, 문장에서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이미지를 작가의 상상력과 개성을 동원해서 표현함으로써 일반대중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며, 꿈꾸고 살아왔던 삶의 바탕을 흥미와 재미있게 전달한다. 민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



[그림 1] 삼국지, 6쪽 중 2, 3 그림



[그림 2] 아리공주와 꼬꼬왕자, 성미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논문전, 2002

얘기되었던 옛 소설이나 전설, 신화 등을 함축시켜 중요한 부분만을 병풍에 연속적으로 그려 넣음으로써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였으며

[그림 1],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이야기의 진

전·분위기에 따른 다양한 색채표현과 등장인물의 감정상태·음직임까지 묘사하여 어린이에게 다양한 흥미와 감동을 전달한다. [그림 2]

2) 전문지식 · 정보 전달성

사물의 구조, 또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사실 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데는 문장에 의한 설명보다는 한 장의 그림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된다.

전문지식·정보 전달성은 문자나 사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나 상황 등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 작가의 개성이 예술성보다 표현되는 대상이나 형태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정보 전달성의 성격을 지닌 민화의 지도화는 지도와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형태로 주로 지관들이 지니고 다녔던 풍수도와 함께 서민들이 자연과 풍수에 대한 사상을 염볼 수 있는 그림으로 중요한 건물이나 거리의 표시, 지역내의 상황을 실경(實景)도 기법으로 한눈에 보이게 표현하였고 [그림 3], 과학 및 전문지식 전달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복잡하고 세밀한 관계구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4]



[그림 3] 관서팔경(부분)



[그림 4] National Geographic Bizarre Organism Lurks on Lobster's Mouth, 1996

3) 시대적 기록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이 갖는 기록성은 그 시대의 사회생활과 문화를 반영한다. 민화는 중요한 사건이나 행사, 풍습 등을 오래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할 내용을 글과 함께 그림으로 그려 전하였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반대중에게 인쇄·제작되어 보여지고 저장되며, 소비되는 것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생활습관, 또는 문화의식과 경제상황 까지 주제로 삼고 있다.

기록화적인 성격을 띤 민화는 일부 부유한 양반들이나 중인층



[그림 5] 희흔례



[그림 6] Who mattered and Why crises in Leadership, Edel Rodriguez, Time, 1999

의 생활상을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구성방식으로 표현한 풍속화에서 나타나며 [그림 5], 일러스트레이션은 과거와 현재의 우리 생활모습이 기록된 것으로써 당시의 사상, 문화의식, 경제상황과 활자방식 등 시대가 지나온 발자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림 6]

4) 환상성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환상성은 실제요소와 비실재적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여 표현된 것으로 일반대중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의 여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환상성은 상상력의 자극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민화를 제작한 화가들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게는 개성 있는 표현방법을 확장시켜주는 요소가 되며, 일반대중에게는 호기심과 친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민화에서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들과 상징적 이미지들이 전달하는 환상성은 늙은 잉어가 용으로 수탉이 봉황으로 변하고, 담배를 피우는 호랑이가 있으며, 까치와 평화롭게 놀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여러 사건들이 공존하여 펼쳐지며, 낮과 밤이 같이 그려지고 한 인간의 유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하나의 화면 속에 그려지기도 한다. [그림 7]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환상성은 어린이에게 무한한 꿈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요소로서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상상력을 유발하면서 독특한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무한한 꿈과 희망을 주는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그림 7] 까치호랑이

[그림 8] 아리공주와 꼬꼬왕자, 성미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전,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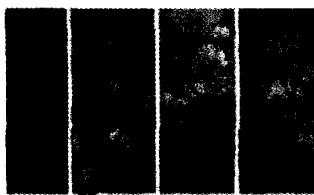
5) 심미성

대중예술로서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미지에 알맞은 미적, 또는 정서적 감정표현으로 대중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전달한다.

민화의 심미성은 주로 병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병풍은 온돌이라는 주거형태에서 찬바람을 막아주는 실용성과 함께 칸을 막아서 하나의 공간을 다른 용도로 분활 하는 효과적인 쓰임새를 가진 물건으로, 색채대비가 강한 색상사용, 다시점 사용과 원근법의 무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시되는 공간처리, 평면적으로 표현된 사물의 상호관계 무시 등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림 9]

일러스트레이션의 심미성은 20세기 다양한 현대미술의 표현스타일을 흡수하고 응용함과 더불어 일러스트레이터의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으로써 귀엽고 예쁘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풍

부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용의 분위기와 이야기의 성격에 알맞은 기법이 요구된다. [그림 10]



[그림 9] 모란도



[그림 10] 꽃과 꿀, 조준영, 제3회 올림전, 2002

6) 풍자·해학성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깨우치거나 비판한다는 의미를 지닌 풍자는 그 시대의 상황과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 비유하거나 웃음을 앞세운 숨겨진 뜻으로 표현된다. 익살스러우면서도 풍자적인 말이나 행동, 것이라는 해학은 풍자와는 달리 인간의 모순과 비리를 파헤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표정 속에 애정, 즐거움, 희망을 제인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와 의인화된 형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풍자와 해학은 사회적 문제점이나 정치권력, 금력, 풍속습관을 과장·왜곡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고 표현대상의 비판과 통쾌감을 주며, 사회적 공공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민화의 사냥도에서 나타나는 풍자는 엄격한 사회계급으로 인한 양반과 평민의 갈등과 전란 후 사회질서의 혼란과 경제적 기반이 혼들리면서 초래되는 심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림 11],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표현되는 풍자와 해학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발상이 표현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정대상이나 집단·단체 등을 과장되고 변형된 형태로 표현하는 캐리커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상징적이고 비판적이며 유머가 있는 묘사로 본문의 내용을 전달한다. [그림 12]



[그림 11] 사냥그림 8폭 중 한폭



[그림 12] Nappy Time, David O'keefe, Time, 2000

7) 교육성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교육적 가치는 대중의 객관성에 호소하며, 조형적으로는 순수감각에 호소하는 형식을 통해 보다 높은 심리적·정서적 감화 작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대중의 시각환경이 되며, 현실에서 가보지 못한 여러 가지 가공적, 사실적 경험을 간접체험 함으로써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구체

적 사물의 관계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상상력과 사고력, 도덕성 및 가치판단, 정서개발의 역할을 한다.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등 윤리적인 글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민화의 교육성은 자녀들에게 효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글이나 행동으로 가르치기도 했지만 효자도를 병풍이나 죽자로 꾸미거나 벽에 붙여 늘 가까이 두고 보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효를 가르쳤다. [그림 13]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은 일반 도서와는 달리 어떠한 내용이나 형식, 종류에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가보지 못한 세계, 만져보지 못한 물건, 사물의 구조와 형태, 색채 등을 지각하기 때문에 그림책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어린이의 감정은 풍부하고 다양해진다. 그러므로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은 흥미와 오락성이라는 필요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지침서로 해석된다. [그림 14]



[그림 13] 문자도

[그림 14] 노란우산, 류재수, 재미마주, 2001

8) 의인화

자연이나 무생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스럽게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표현한 의인화는 형태의 성격여부에 따라 다양한 흥미와 정서적 공감을 전달한다.

민화의 의인화된 표현은 당시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화된 표현과 주술적 의미를 내용으로 담고있다. 상징적으로 사용된 형상들은 내용상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인화된 표현이 나타나는 데 동물의 암수를 남성과 여성에 비



[그림 15] 쌍록도(부분)



[그림 16] 오소리네집 꽃밭, 정승각, 길벗어린이

유하고 다산을 의미하는 그림으로 표현한다든가, 폭포를 거스르는 잉어그림이 과거급제 한 선비로 묘사되어 출세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15]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변형되고 의인화된 형태는 사용된 색채와 함께 등장인물의 감정상태나 성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상상과 환상을 펼쳐주며, 어린이에게 친근함을 주고 사물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림 16]

9) 변형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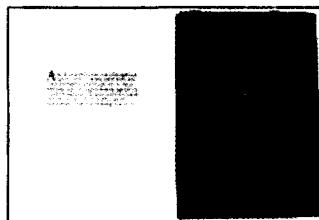
변형된 형태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대상을 단순, 과장하거나, 변형하여 표현한 것으로 형상, 크기, 색채를 가지며, 대상의 표정과 움직임을 적절히 묘사하고, 대중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요소와 꿈과 상상의 세계를 전달 할 수 있는 환상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구성되어 있다.

민화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변형은 강한 색채사용과 함께 입체감이 없는 자유분방한 형태로 그 모양이 일그러지고, 바뀌고, 과장되게 그려져 있으며, [그림 17]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형된 형태표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개성과 함께 표현대상의 성격을 대변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며,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현대상을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 변형되게 표현하거나 단순화된 형태로 생략하여 표현된다. [그림 18]

특히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되고 있는 변형된 형태표현은 어린이에게 상상과 꿈의 세계를 경험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어린이의 심미안을 향상시키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창의성과 개성이 바탕이 된 형태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7] 수성노인



[그림 18] Puss in Boots, Stasys Eidrigevicius,
North-South Books, 1994

5. 결론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은 작가의 예리한 관찰력과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고와 더불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일상주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와 상징적 내용을 소재로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그 시대와 문화를 대변하고, 일반대중에게 호기심과 친밀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환상적 표현과, 현실에서 가보지 못한 가공적·사실적 경험을 통한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사물의 관계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며, 그림 속에 담겨진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대중의 흥미와 감동,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사상, 의식을 가장 짙게 지니고 있

는 민화에서 미의식의 표현을 통한 정신을 찾아내어 시각화하는 것은 우리 것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유사한 조형특성과 기능 및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적 정신세계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를 전시회, 인쇄·출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대중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미의식에 호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표현스타일 개발과 표현대상 및 등장인물, 내용의 분위기와 주제에 알맞은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표현과 화면구성, 그리고 창의성과 독창성, 예술적 심미성을 담아 낼 수 있는 표현능력, 텍스트와 대상에 대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예리한 통찰력과 객관적 사고, 독자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 등으로 한국적 사고와 미의식이 바탕이 된 표현방법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국적 정서, 한국적 이미지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우리정서에 부합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올바른 방향제시가 필요한 바, 민화가 지니고 있는 정서와 독창성을 일러스트레이션에 균형감 있고 조화롭게 수용함으로써 한국적 일러스트레이션표현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월간미술, 10월 호, 1997
- 김철순, 조자용 공편, 조선시대민화, 예경산업사, 1989
- 김철순, 한국민화논고, 예경예술이론총서, 1991
- 윤열수, 민화 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5
- 임두빈, 민화란 무엇인가, 서문당, 1977
- 김원용 외, 한국의 미, 중앙일보, 2001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 한국박물관회, 2002
-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다할미디어, 2001
- 미쓰이 다다시 지음, 이상금 역, 어린이와 그림책, 샘터, 1990
- 김재은 지음, 유아를 위한 예술교육, 샘터, 1992
- 山田理英, 김충기 옮김, 일러스트레이션과 이미지전략, 나남, 1991
- 앤드류 장,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디자인하우스, 1993
- 이언 심프슨 편, 한국미술연구소 옮김, 문철감수, 새로운 일러스트레이션 입문, 시공사, 1997
- 요사다 싱이치 저, 이민정 옮김, 윤재준 감수, 일러스트레이션의 전통과 문화, 범우사, 2000
- 무시우스 왕 저, 조영철 감수, 최길렬 역, 디자인과 형태론, 국제, 1997
- 오까미야 노부하루 저, 김학성, 배정순 공역, 현대 디자인사, 조형사, 1990
- Steven Heller & Marshall Arisman, The Education of an Illustration, Allworth Press, 2000
- Walt Reed, The Illustrator in America, The Society of Illustrators, 2001